코로나 사태만의 문제가 아닌,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말세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상입니다.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메뚜기떼는 한국을 집어 덮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고 경제도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... 언제라도 끝이 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사순절날 우리가 가져야 할 몇 가지 태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, 이는 사순절이 아닌 끝을 향한 지금 시점에서 크리스천이 해야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신하여 기도하라,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라, 서로 불평말고 대접하라, 헌신하며 봉사하라... 이 중 가장 큰 것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가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항목입니다. 이것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. 지금 이러한 세상 분위기 속 change the world를 하기 위해 모인 한동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지 깊게 생각해 봐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